|  |
| --- |
| Week 21 **성경 문답지 & *묵상과 기도*** 2018년 5월 20일 ~ 5월 26일 |

 교 구: 구 역: 이 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음을여는 찬양(찬송가) | 5월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26일 |
| 463장(통 518장) | 483장(통 532장) | 391장(통 446장) | 304장(통 404장) | 330장(통 370장) | 251장(통 137장) | 93장(통 93장) |
| 일년 일독 스케줄 | 대하 12-15 | 16-19 | 20-22 | 23-25 | 26-28 | 29-30 | 31-32 |
| 5월20주일 | 요한계시록 19장 | \*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길고 지루하게 묘사되던 대환난은 드디어 종식되었고, 최후의 심판을 위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본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가 그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  문제 | 다음 ( )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그의 입에서 ( )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
| 묵상:  | 언제 오시는지 그때를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징조들이 이룬 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 기도: | 주님, 언제나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며 충성된 하루 하루를 살게 하소서.  |
| 5월21월요일 | 욥기 6장 | \*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1차 답변** : 엘리바스의 질책성 변론이 끝나자, 욥은 입을 열어 자신의 순수함을 변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장에서 욥은 비록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엘리바스의 비난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친구들의 냉정함에 대해 책망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
|  문제 | 다음 ( )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너희는 돌이켜 ( )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
| 묵상: | 비록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할지라도 쉽게 분을 발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
| 기도: | 주님, 나를 공격하는 어떤 말이라도 분함보다는 인내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사람되게 하소서.  |
| 5월22화요일 | 욥기 7장 | \* **욥의 인생관**: 본장의 내용은 먼저 욥이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하며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전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고난으로 인한 자신의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까지 가중되어 차라리 죽기를 소망한다고 심경을 토로합니다.  |
|  문제 | 다음 ( )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내 생명이 한낱 ( )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
| 묵상: | 어떤 이유로 곤경에 취할 수 있고 또 취해야만 하는 최우선의 응급 조치는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
| 기도: | 주님, 나를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먼저 달려가 나의 연약함을 고하게 하소서.  |
| 5월23수요일 | 욥기 8장  | \* **발닷의 2차 변론:** 빌닷은 자신의 주장의 권위를 전통에 두고 있습니다. 즉, 죄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전통적인 교훈을 지지합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욥은 틀림없는 악인이라고 정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  문제 | 다음 ( )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 )를 굽게 하시겠는가” |
| 묵상: | 우리는 남에게 이야기 할 때 원칙론에 입각하여 자신의 주장만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접근하여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 기도: | 주님,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 보다 나의 이웃의 상황과 어려움을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  |
| 5월24목요일 | 욥기 9장 | \* **발닷에 대한 욥의 1차 답변** : 욥은 빌닷은 논리 중 하나님이 결코 심판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하였고, 자신에 대한 정죄를 스스로 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존재인데 반하여 인간은 미약하고 불완전하며, 무지하며 꾀 많은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중재자를 구합니다.  |
|  문제 | 다음 ( )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 )와도 같구나” |
| 묵상: |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함을 분명히 인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 기도: | 주님, 모든 문제해결의 근원되신 분이 오직 예수임을 알고 의지하게 하소서.  |
| 5월25금요일 | 욥기10장 | \* **욥의 기도**: 본장에서 욥은 주로 욥3,4,7장과 유사한 사상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나 그의 말투는 좀더 분노가 누그러져서 부드럽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직시하여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영육간의 괴로움을 탄식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잠시만이라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
|  문제 | 다음 ( )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 )으로 옮겨졌으리이다” |
| 묵상: | 본시편에서 욥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의의 관점을 무시한 채 자비를 호소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 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 기도: | 주님,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하는 자 되게 하소서.  |
| 5월26토요일 | 욥기11장 | \***소발의 1차 변론:** 본장에서는 욥의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과의 변론에 나섭니다. 소발 역시 엘리바스와 빌닷의 견해와 같이 욥의 자세를 비판합니다. 소발은 앞서 두 친구보다 더욱 강경한 어조로 욥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 욥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도리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
|  문제 | 다음 ( )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 )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
| 묵상: |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
| 기도: | 주님,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자 되게 하소서.  |